한국인구학 제35권 제1호(2012년), pp. 53~75
연구논문

연령주의(Ageism) 척도의 개발 및 타당성 연구*

김주현**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연령주의(Ageism)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를 통해 개발된 노인집단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관련된 측정도구들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노화불안, 노인에 대한 인식(편견, 고정관념, 기피), 차별행동 등 연령주의에 대한 다차원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문항을 개발했으며 이에 대한 검증작업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연령주의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다차원적 문항을 정리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예비문항 44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사전조사 분석을 통하여 31개의 예비문항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18세 이상 1,535명을 대상으로 문항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내적신뢰도 분석을 통해 8문항을 정리하여 23개 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최종적으로 7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21개 문항이 구성되었다. 하위 요인으로는, 노화에 대한 인식으로서 노화에 대한 불안, 외모변화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요인과 한편 노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나타내는 요인도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편견, 기피/회피를 나타내고 극단적으로 노인집단과의 분리를 나타내는 요인, 연령(고령)에 대한 차별 행동이 주요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연령주의 척도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노인집단의 위치와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이 결과는 노인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노인관련 업무를 실천하는 현장에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에 대해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핵심단어: 연령주의, 척도 개발, 신뢰도, 타당도, 요인분석

Ⅰ. 서론

한국 사회의 경로효친이라는 전통적이고 견고한 사회적 가치는 노인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오랫동안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다. 중요한 사회통제원리로서 작용해 온 유교적 효와 경로사상은 노인을 연장자로서 존경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시켰다.

그런데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 경향

* 본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 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NRF-2010-330-B00005).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교수 | haha0929@empal.com

은 노인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고령화가 사회적 생산성의 감소(경제 위기), 복지, 의료비의 부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및 정당성의 위기) 등을 초래한다고 하는 고령화 위기론에 근거한다(김미숙, 2003). 고령화 위기론에 의하면, 노인인구집단은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이전급여를 수급 받아야 하는 의존적 존재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부양비를 올리고, 공적 연금이나 의료보험 등 사회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존재이다. 고령화 위기론은 이미 고령화로 인한 실제적인 경제적 파장을 과장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 받고 있으나(Jackson, 1998; 정경희・한경혜・김정석・임정기, 2006)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노년담론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인 자신의 개인적인 노화과정과는 별도로, 누가 노인이며, 아울러 그들의 노화(aging)와 관련된 지위와 역할이 그 사회에 의해 재규정 될 때, 노인문제는 사회문제(social problem)로 등장하게 된다(Matcha, 1997). 노인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정적)변화는 노인집단의 생활세계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사회 성원과의 관계에, 노인 스스로의 의식과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노인이 소외되고 부당하게 대우 받는 차별의 경험을 갖게 하며, 궁극적으로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세대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듯 나이 듦(연령)을 이유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차별이 연령주의(Ageism)논의로 제기되고 있다. 서구에서 비롯된 노년의 사회적 이해 방식인 연령주의 개념에 기초하여, 노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관념들이 노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으로 이어져서 구조적 관계로 굳어지고 있음을 밝히고(김주현, 2009), 한국사회에서도 연령주의가 노년기의 일과 가족 그리고 사회・문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정경희, 2004; 박경숙, 2004). 노동시장에서는 임금과 노동지위에서 연령차별이 나타나며,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과 의존성, 부정적 감정들이 노인과의 갈등으로 나타나고(정기원, 2001), 학대상황에 까지 이를 수 있는 불안한 가족관계가 보고되고 있다(최해경, 2004).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는 현실 등을 연령주의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사회 노인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노인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태도, 사회적 지위 하락, 차별을 지적하여 왔다(김주현, 2007; 이윤경, 2007; 노공균・조소영・신동숙・이태훈, 1991).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이해를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실증적인 척도 개발을 위한 작업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노인

집단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떠한지를 실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개발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연령주의(Ageism)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수행된 노인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에 관련된 실증조사 결과를 통해 개발된 조사도구(척도)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령주의 평가 내용을 조작화한다. 그리고 실증조사를 통해 연령주의 평가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척도를 개발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연령주의(Ageism)

연령주의(Ageism)란 용어는 1969년 무렵 미국 국립노화연구소(NIA) 초대소장이었던 로버트 버틀러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어진 이후, 많은 연구자들을 통해 논의되었다. 버틀러는 나이든 사람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형화하고 차별하는 과정을 연령주의라 하였으며(Butler, 1987), 연령주의를 측정하려고 시도하였던 Palmore(1999)는 노인집단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편견이나 차별을 일컫는 것이라 하였다. Bodily(1991)는 연령주의가 연대순에 따른 연령개념화에 의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사건 또는 특성, 능력, 한계의 속성이라고 정의하였고, Bytheway(1995)는 연령주의에 노인은 추하고 고집 세고 비생산적이라는 것과 같은 편견과 젊음이 늙음보다 낫다는 등의 태도를 포함된다고 보았다. 또한 연령주의는 연대기적 연령을 바탕으로 사회가 특정의 연령집단으로부터 그 사회의 기회와 자원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켜 버리는 장치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성차별주의나 인종차별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고 주장하였다.

연령주의는 태도의 구성요소인 감정, 인식, 그리고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Nelson, 2005). 감정적인 요소는 노인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관한 것이고, 인식의 요소는 어떠한 생각 혹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며, 행동의 요소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에서 행해지는 차별에 관한 것이다. 또한 정책이나 기관의 행정을 통해 발생하는 차별 역시 연

령차별주의의 한 구성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Wilkinson & Ferraro, 2002). 연령주의는 이론상 이러한 네 가지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지만, 연구자들은 해당 사회에서 나타나는 연령주의를 조사할 때, 그 중 일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특히, 연령주의의 감정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인식적인 측면이 연령주의의 연구에서 큰 축을 이뤄왔다. 사람 혹은 현상에 대한 사전 인식이 감정과 행동을 이끈다는 가정(Fishbein & Ajzen, 1975) 또한 이러한 연구경향을 부추겨 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령주의를 직접적 차별 태도나 편견 행위뿐만 아니라 구조화된 관계로 접근하려는 연구들이 있다. Glanda Law(1995)는 권력관계에서 연령주의를 파악한다. 인종주의나 성차별주의처럼, 연령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편견과 억압의 유형으로 구조화하는 것이라고 연령주의를 파악하였다. 연령주의가 편견의 한 형태이고, 그것을 통해 노인들을 억압의 대상으로 만들며 그들을 제한하고, 사회적으로 연령차별적 의식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연령주의는 단순히 억압의 대상이 되는 노인들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연령 인식을 주조하며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령주의는 현재 노년의 생활세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은퇴, 수입보장, 의료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제도적, 정책적 대비에 있어서 그 사회의 연령주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연령주의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노인들의 자존감의 상실,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상실 등으로 개인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연령주의에 의해 노인들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무시하는 것 등의 경제적 비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노인들의 지혜와 사회적 지원, 그리고 문화적 자원을 무시하는 것 등의 사회·문화적 비용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들에 대한 이해와 실증을 위해서 연령주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그것이 현재 노년기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길이다.

2. 연령주의(Ageism)의 측정

한 사회가 특정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 가를 통해 그 사회에 대한 이해를 가늠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인간 역사에서 여성, 유색인종, 장애인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이해에 따라 사

회의 특성과 변화가 드러나기도 했다. 성차별주의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이해가 사회마다 다르고, 인종주의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이해에 따라 다양한 사회생활의 측면에서 다른 모습들을 보여 왔다(Palmore, 1999).

그렇다면 노인집단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태도도 사회마다 다를 수 있다. 연령주의의 양상은 그 사회 노인 생활을 대변한다고 하겠다. 사회가 어떻게 노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이들을 사회의 중심부에서부터 고립시키고 있는가 하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이해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노인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다(김주현, 2009).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태도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 중 대부분은 노인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태도를 밝히는 연구(김욱, 2003; 김윤정・강인・이창식, 2004; 김윤정・정선아, 2001), 노인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다른 요인(심리적 상태, 만족도, 가족 및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거나(남석인, 2008; 원영희, 2005; Victor, W.M., 2007; Pasupathi, M. & Lockenhoff, 2002), 특정 영역(노동, 돌봄 등)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김동선, 2011; Dennis & Thomas, 2007; Rupp, Vodanovich & Crede, 2006), 노인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연구(박경란・이영숙, 2001; 한정란, 2000)이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노인집단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인식을 측정하는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았고, 노인에 대한 태도, 인식 그리고 차별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이 기존 연구들의 것들을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하여 사용되어 왔다. 특히 국내에서는 Palmore(2001)가 개발한 척도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진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원영희, 2005; 김욱, 2003).

노인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적 태도와 인식 그리고 차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Palmore의 Ageism survey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Palmore(2001)는 긍정적, 부정적 내용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편견(고정관념과 태도가 포함된)과 차별(개인적 차별과 제도적 차별이 포함된)의 내용으로 구성된 문항 20개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 문항에 대하여 60세 이상 노인 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 조사도구에 대한 내적신뢰도와 타당도 등을 검토하여 척도를 완성하였다. Palmore의 Ageism Survey 문항은 이후 국내외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는데, Plamore의 척도는 주로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Ageism 조사에 적합한 내용(노인이 경험한 Ageism)이며 몇몇 문항은 매우 서구 문화적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제한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김욱, 2003).

국내에서는 많이 소개되지 않았지만,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이 노인집단에 대한 차별적 인식 및 태도를 밝히기 위한 조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먼저, Lasher, Kathleen P., and Patricia J. Faulkender(1993)는 노화불안(aging anxiety)을 측정할 다차원적 척도를 개발하였다. 기존연구들은 노화불안과 죽음불안, 나이, 고령자에 대한 태도 등 사이에 잠정적 관계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즉 노화불안이 고령자에 대한 태도나 행동을 결정하는 매개 요인일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이에 Lasher 등은 25세 미만부터 75세 이상까지의 3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노화불안척도(AAS)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하위 요인들은 4개로 노인에 대한 두려움(Fear of Old People), 심리적 불안정(Psychological Concerns), 외모에 대한 걱정 (Physical Appearance), 상실에 대한 두려움 (Fear of Losses)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두려움 요인은 노인들과의 관계(생활)에서 느끼는 것들을 긍정적 문항으로 개발한 내용이고, 심리적 불안정 요인에 속한 문항들은 고령에 긍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직면해야 하는 중요한 심리적 과업을 다룬다. 외모에 대한 걱정에 속한 문항들은 나이듦에 따라 자신의 신체적 외양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관련된 것이고, 상실에 대한 두려움 요인의 문항들은 고령기에 무언가를 빼앗기거나 잃게 되는 데 대한 불안(상실이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다룬다. 우정, 신체적 건강, 의사결정능력, 타인으로부터의 존경, 삶의 의미 등이 이 요인이 다루는 쟁점들이다.

비슷한 시기에 Fraboni, Maryann, Robert Saltstone, and Susan Hughes(1993)도 기존의 척도들이 주로 측정한 신화, 신념, 잘못된 지식 등 인지적 구성요소에 더하여 감정적(affective) 요소를 포함하는 도구를 고안하는 것을 목표로 연령주의 척도(FSA)를 개발하였다. Fraboni 등은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기존 척도들이 태도의 인지적 측면만을 다루어왔기 때문에 적대적 태도, 차별적 태도, 회피 욕망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럼으로써 연령주의를 측정하는 더욱 완결적인 척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 231명의 자료 구축하였는데, 심리학 및 사회복지 전공 학부생 109명, 정신병원직원, 자영업자, 건강 및 교육 시설 등으로부터 얻은 122명으로 평균 연령은 31.19세(16-65세), 교육기간은 평균 14.16년이었다. 이 조사를 통해 연령주의의 한 척도로서 FSA의 구성타당성(construct validity)과 내적 일관성의 신뢰성(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을 평가하였다. 최종 분석결과, 29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가 결정되었고, 하위 3개 요인으로, 비방(적대적인 말), 차별, 회피 등이 나타났다. 비방 요인에 해당하는 항목은 노인집단에 대한

오해, 신화로부터 증폭된 적의, 혐오의 표현 등에 관한 것이고, 회피 요인에 대한 항목은 노인들과의 사회적 접촉을 피하는 경향에 대한 것들이다. 차별은 보다 극단적인 연령주의를 나타내는 항목들에 관한 것으로 보다 강한 편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리, 격리(segregation)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Fraboni 등의 연령주의 조사 도구는 일본에 도입되어 활용되었다(杉井潤子, 2007a, 2007b; 原田 謙, 2004, 2008).

한편 유럽에서 진행된 Ageism 조사도 있는데, 이 연구는 WHOQOL(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 그룹에서 노인들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Laidlaw K, Power MJ, Schmidt S, & WHOQOL-OLD Group(2007)은 WHOQOL-OLD 센터의 일원들로서 일련의 과정(파일럿 테스트, FGI, 전문가 델파이 조사 등)을 거쳐 AAQ(The Attitude to Ageing Questionare)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15개국의 60세 이상 5,5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24개의 문항을 결정하였다. 하위 요인으로는 심리적 성장(Psychological growth), 심리적 상실(Psychological loss), 신체적 변화(Physical change)의 3개로 구분되었다.

최근에는 Cherry와 Palmore(2008)가 고령자와의 일상적 관계에서 연령주의적인 행태들에 대한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개발된 척도는 '고령자에 대한 평가척도'(Relating to Older People Evaluation; ROPE)로서 연령주의적 행동의 빈도와 유형을 측정하며, 자기 보고 방식을 따랐다. 이 연구를 위한 조사 대상은 전체 314명으로 학부대학생 147명(19-49세), 고령자 120명(46-98세), 대학구성원 47명(20-87세)이며 남성 100명, 여성 214명이고, 연령범위는 18-98세. 교육수준은 9년 이하에서 20년 이상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항은 총 20개의 연령주의 행위 유형을 포함하는데, 그 중 6개는 긍정적인 연령주의, 14개는 부정적인 연령주의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앞의 Palmore 척도가 노인 스스로의 경험에 한정되고, Fraboni 척도는 실제 행동이 아니라 태도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개선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Cherry와 Palmore의 ROPE는 연령주의를 구성하는 편견(스테레오타입과 태도), 개인적 차별(행동), 제도적 차별(정책과 실천) 중 개인적 차별만을 측정하고자 했다는 한계가 있다.

일본에서도 최근 들어 연령주의에 대한 연구와 측정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주로 Palmore의 논의와 Fraboni의 척도를 활용하고 있다. 原田 謙 등(2004, 2008)은 Fraboni의 척도를 일본어판으로 재구성하면서 문항을 최종적으

로 14항목으로 줄여서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도시지역 25-39세 남성 1,289명이 조사되었다. Fraboni 척도를 활용하여 3개 하위 요인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여 비방, 차별, 회피를 하위 요인으로 하는 14개의 단축판을 결정하였다. 이후 杉井潤子(2007a, 2007b)의 연구에서도 Fraboni의 척도가 기본적으로 활용되었다. 40세 이상의 남녀 1,840명을 조사하였으며, 앞의 原田 謙 등이 Fraboni 척도 중 최종 단축판을 만드는 중간단계에서 사용하였던 19개 문항을 기초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하위 영역을 5개로 추출하였는데 기피/거절, 멸시, 성가심, 무시, 타인감(他人事) 등으로 나누었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러한 기존 척도들을 활용하여 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측정하였다. 김욱(2003)은 Palmore의 Ageism Survey 조사항목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번역본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60세 이상 노인 4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차별경험의 정도 및 차이와 그 요인에 대한 실태를 밝혔다. 원영희(2005)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차별피해경험을 조사하는 연구에서 무시경험, 기피경험, 소외 경험 등 3개 하위 요인 20문항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기존의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이미지 등 관련 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성되었다.

지금까지 개발된 노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연령주의 측정 도구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인식 및 태도에 집중되어 있거나, 차별 경험에 집중되어 있거나, 노화 불안과 같은 특정 영역이 특화되었다. 또한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활용된 조사에 있어서도 노인집단 또는 젊은 세대들로 나누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들에서 나아가 노인집단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척도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문항들을 검토한 후 노인집단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노화불안, 차별 경험 등을 아우르는 문항을 개발하고 이것을 검증하는 작업을 위해 전체 남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활용하였다.

Ⅲ. 연구방법 및 자료

1. 조사 대상자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변인	하위집단	인원(%)
성별	남	688(44.8%)
	여	847(55.2%)
연령	20대	251(16.4%)
	30대	336(21.9%)
	40대	366(23.8%)
	50대	249(16.2%)
	60대	164(10.7%)
	70대 이상	169(11.0%)
결혼여부*	기혼	1029(67.0%)
	미혼	301(19.6%)
	비혼	205(13.4%)
학력**	무학	76(5.0%)
	초등(국민)학교	126(8.2%)
	중학교	116(7.6%)
	고등학교	455(29.6%)
	전문대학	197(12.8%)
	대학교	464(30.2%)
	대학원(석사 이상)	95(6.2%)

* 기혼에 별거 10명을 포함함. 비혼은 사별, 이혼, 동거를 합친 숫자임

**서당(한학)은 제외

본 연구는 노인집단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포괄적인 측정이 가능한 연령주의 척도를 개발하고 구성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전국의 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35명(회수율 61.4%)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자료수집은 한국종합사회조사(KGSS)[1)]

1)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 Korean General Social Survey)는 한국사회의 구조와 변화 및 국제비교 연구를 목적으로 매년 전국표본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조사는 미국 시카고대학교 NORC(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의 GSS(General Social Survey)를 기본 모형으로 삼고,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시행되는 GSS 형태의 조사들의 내용을 일부 수용하며, 한국사회의 특수성도 적절히 고려해서 설계된다. 설문지는 매년 반복해서 조사하는 반복핵심설문(Replicating core questions), 특정년에 회원국들이 정하는 주제모듈(topical modules), 그리고 특별 연구를 위한 주제모듈(Special topical modules)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구성된다. 본 연구는 2011년 KGSS의 조사 중 연령주의(Ageism) 특별주제 모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현지조사는 전국 가구로부터 다단계지역확률표집방법(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으로 추출한 표본을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의 특별주제모듈 조사로 진행되었다. 표본추출방법은 다단계지역확률표집방법(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2. 예비문항 제작 및 구성

노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연령주의는 노화에 대한 생각, 노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노인에 대한 차별적 행동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기존 척도 문항들을 검토한 후, Lasher 등(1993)의 노화불안척도(AAS) 20개, Cherry와 Palmore(2008)의 '고령자에 대한 평가척도'(Relating to Older People Evaluation; ROPE), Fraboni 등(1993)의 29개의 FSA문항을 기초로 개발되었다.

이들 예비 문항들에 대한 1차 점검을 위해 사회학과 사회복지학 그리고 노년학 전문가들에게 문항의 적절성과 이해가능성을 평가받아 문항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번역(역번역)을 통해 문항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리된 예비문항이 44문항이었다.

그리고 44개의 예비문항을 활용하여 18세부터 50세까지의 성인 177명을 대상으로 파일럿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내적신뢰도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적 신뢰도 분석에서는 각 문항과 문항 종합간의 상관관계, 문항을 제외했을 때 신뢰도, 하위차원별 신뢰도 및 각 문항과 하위차원과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항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문항을 삭제하면 신뢰도 지수가 올라가는 경우와 요인분석 결과 적재값이 떨어지는 문항을 정리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31개의 문항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서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로 평가 되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31개 문항에 대한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령주의 척도의 하위 요인을 확인하고 문항을 보다 축약하기 위해 내적신뢰도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

분분석(Principle Component Method)과 직교회전법(Varimax Rotation Method)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령주의 척도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2] 통계처리는 SPSS 18.0 프로그램과 AMOS 20.0을 이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문항 분석

각 문항이 정상분포에서 벗어나 편중된 반응을 보이는 경우 조사대상자간의 변별력 기능이 약한 문항으로 판단될 수 있다(김영재, 2004). 따라서 각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첨도와 왜도를 살펴보았다. 다행히 각 문항은 정상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다음으로 문항의 내적신뢰도를 살펴보았다. 각 문항은 전체구성개념의 하위문항으로서 전체문항과 각 문항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야 한다. 분석 결과, 상관관계가 낮은 8개의 문항이 삭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노화에 대한 문항 중 하나인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할 일이 많을 것이다," "노인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등이 있다. 또한 노인에 대한 차별경험의 문항 중 기존 연구(Cherry & Palmore, 2008)에서는 긍정적 연령주의 문항으로 구분되었으나 이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의미에 대한 혼란이 제기되었던 문항 등이 내적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3] 이것은 기존 연구에서 긍정적 연령주의로 구분되었던 문항들로 서구의 문화적 맥락과는 다른 한국사회에서는 공경(恭敬)의 문화적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나타

2)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적 배경 하에서 미리 설정된 요인차원 및 가설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주로 사용된다. 즉 요인 모형을 경험자료에 비추어 검증하는 것이다(김계수, 2010).

3) Cherry와 Palmore(2008)의 연구에서는 분명하게 긍정적 연령주의로 구분되었던 문항에 "고령을 이유로 차도를 건너는 것을 도와준 적이 있다(원척도에서는 문을 열어 잡아준적이 있다), 노인의 나이 때문에 그들과의 대화를 즐긴 적이 있다, 노인에게 그들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어 보인다"고 말한 적이 있다" 등 이 있다. 그런데 이들 문항에 대해서 Cherry와 Palmore도 앞의 긍정적 연령주의로 응답된 문항들이 실제 노인집단에 대한 긍정성에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으나 연령주의의 차원이 아니라 정중하고 배려있는 행동으로 인식되어서 나온 행동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실제로는 이들 응답자들이 노인(modal older adult)에 대한 매우 고정적인 인식(노인은 신체적으로 약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노화의 분명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일 수 있으므로)을 발현한 것이며 이것은 보다 심도 있는 연령주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논의하였다.

<표 2> 문항분석

문항번호	문항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a1	나는 나이 들었을 때 할 일이 많을 것이다	2.81	1.07	-.07	-.90
a2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여전히 대부분의 일을 나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2.29	.92	.59	-.09
a3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나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하리라 예상한다	2.23	.87	.48	.03
a4	나는 거울에서 흰머리를 보게 될 날이 두렵지 않다	2.56	1.18	.36	-.85
a5	나는나이가들었을때늙어보이는것을걱정하지않는다	2.58	1.17	.37	-.84
a6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젊게 보이려고 나이를 속일지도 모른다	2.35	1.15	.58	-.64
a7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내 친구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버릴까 봐 두렵다	2.84	1.19	.06	-1.01
a8	나이가 들수록 나의 건강에 대해 걱정이 커진다	3.63	1.06	-.69	-.11
a9	나이가 들었을 때 내 문제를 다른 누군가가 결정한다는 생각을 하면 불안하다	2.95	1.14	-.06	-.91
a10	나이가 들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걱정이다	2.65	1.14	.23	-.88
a11	나이가 들었을 때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봐 두렵다	2.72	1.19	.20	-.99
a12	노인에게 그들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어 보인다"고 말한 적이 있다	2.34	1.06	.91	.30
a13	노인의 나이 때문에 그들과의 대화를 즐긴 적이 있다	2.86	1.14	.10	-.87
a14	고령을 이유로 차도를 건너는 노인을 도와준 적이 있다	2.76	1.19	.36	-.84
a15	인생경험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하여 노인에게 조언을 구한 적이 있다	2.76	1.18	.36	-.84
a16	노인에게 "나이가 너무 많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2.14	1.13	.71	-.52
a17	노인에게 나이에 관한 농담을 한 적이 있다	2.01	1.14	.95	-.10
a18	노인이 아플 때 "그 나이에는 아픈 게 정상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2.50	1.32	.30	-1.26
a19	고령을 이유로 노인에게 크게 혹은 천천히 말한 적이 있다	3.46	1.16	-.74	-.29
a20	나이 든 후보자에게 투표하기를 꺼려한 적이 있다	2.30	1.20	.59	-.72
a21	노인은 대부분 인색하며, 돈과 재산을 몰래 숨겨 놓는다	2.59	1.04	.35	-.64
a22	노인은 대부분 과거 속에 살고 있다	3.20	1.09	-.25	-.78
a23	노인은 대부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짜증난다	2.89	1.08	.04	-.83
a24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불평이 많다	2.98	1.08	.03	-.86
a25	나는 노인 그룹 행사에 초대받더라도 가고 싶지 않다	2.60	1.12	.33	-.67
a26	나는 노인과 만나면, 때때로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한다	1.91	.87	.90	.58
a27	노인이 나에게 말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1.97	.92	.85	.46
a28	노인들은 따로(별도로 구분되는) 지역 운동시설을 사용하면 좋겠다	2.30	1.21	.72	-.49
a29	노인들의 주거공간은 따로(별도로 구분되어) 마련되는 것이 좋다	2.21	1.14	.70	-.45
a30	나는 노인과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2.30	1.01	.48	-.35
a31	노인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2.64	.99	.21	-.23

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23개의 문항에 대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2.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령주의 평가 척도 23개 문항의 하위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동일표본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증적 요인분석을 수행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전체 샘플을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이순묵, 2000; Raykov and Widaman, 1995). A 집단(n=767)은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되었고, 집단 B(n= 768)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활용되었다. 두 집단은 성별, 연령별로 편향성 없이 분리되었음을 동질성 평가를 통해 검증되었다(성별: $\chi^2=4.53$, $p>.05$, 연령대:$\chi^2=1.72$, $p>.05$).

요인분석 결과 아이겐값(Eigenvalue)이 1이상인 요인이 7개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의 부하량이 0.5이상이었으며, 표본적절성에 대한 검증으로 KMO값을 살펴보았는데 0.76로 나타났으며, 구형성 검정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Chi-square=4215.12, df= 253, $p<0.001$).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7개 요인이 전체 변량의 63.27%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1은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은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내 친구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버릴까 봐 두렵다,' '나이가 들수록 나의 건강에 대해 걱정이 커진다,' '나이가 들었을 때 내 문제를 다른 누군가가 결정한다는 생각을 하면 불안하다,' '나이가 들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걱정이다,' '나이가 들었을 때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봐 두렵다'등으로 설명변량은 12.01%이다. 요인 1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주로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불안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노화불안'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인은 대부분 인색하며, 돈과 재산을 몰래 숨겨 놓는다,' '노인은 대부분 과거 속에 살고 있다,' '노인은 대부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짜증난다,'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불평이 많다' 등으로 설명변량은 10.82%이다. 이들 문항들은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으로 인한 편견에 대한 것들이다. 요인명을 '편견'으로 하였다.

요인 3는 '나는 노인 그룹 행사에 초대받더라도 가고 싶지 않다,' '나는 노인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번호	문항	1 노화 불안	2 편견	3 기피/ 회피	4 외모 변화	5 차별 행동	6 노화 긍정	7 분리
a2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여전히 대부분의 일을 나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10	-.03	.11	.08	.07	.85	-.02
a3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나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하리라 예상한다	.06	.02	.14	.25	.07	.82	.04
a4	나는 거울에서 흰머리를 보게 될 날이 두렵지 않다	.05	.02	.04	.83	-.02	.28	.01
a5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늙어 보이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14	.07	.04	.87	-.04	.12	.10
a6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젊게 보이려고 나이를 속일지도 모른다	.34	-.10	.27	.47	.24	-.32	-.01
a7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내 친구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버릴까 봐 두렵다	.73	-.07	-.03	.08	.11	-.10	.06
a8	나이가 들수록 나의 건강에 대해 걱정이 커진다	.62	.20	-.13	.00	.00	.00	-.11
a9	나이가 들었을 때 내 문제를 다른 누군가가 결정한다는 생각을 하면 불안하다	.75	.01	.05	-.02	-.05	-.01	.05
a10	나이가 들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걱정이다	.77	.09	.12	.12	-.01	.12	.11
a11	나이가 들었을 때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 봐 두렵다	.70	.11	.07	.14	.04	.24	.06
a16	노인에게 "나이가 너무 많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00	.01	.11	-.02	.71	.07	.07
a17	노인에게 나이에 관한 농담을 한 적이 있다	.08	.08	-.02	.02	.80	.02	.00
a18	노인이 아플 때 "그 나이에는 아픈 게 정상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01	.33	-.10	-.00	.65	.03	.10
a21	노인은 대부분 인색하며, 돈과 재산을 몰래 숨겨 놓는다	.06	.68	.10	.07	.20	-.07	.01
a22	노인은 대부분 과거 속에 살고 있다	.12	.69	-.08	-.02	.14	.07	.12
a23	노인은 대부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짜증난다	.081	.76	.26	-.03	.04	.02	.03
a24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불평이 많다	.021	.76	.15	.04	-.01	-.02	.03
a25	나는 노인 그룹 행사에 초대받더라도 가고 싶지 않다	.06	.28	.66	-.00	-.03	.04	.01
a26	나는 노인과 만나면, 때때로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한다	.01	.01	.83	.07	.08	.09	.06
a27	노인이 나에게 말 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02	.03	.82	.06	.02	.11	.12
a28	노인들은 따로(별도로 구분되는) 지역 운동시설을 사용하면 좋겠다	.07	.03	.11	.03	.11	-.02	.85
a29	노인들의 주거공간은 따로(별도로 구분되어) 마련되는 것이 좋다	.06	.11	.14	.05	.07	.04	.85
a30	나는 노인과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02	.37	.52	.07	-.09	.01	.35

요인고유근	2.76	2.49	2.38	1.79	1.75	1.72	1.67
설명변량	12.01	10.82	10.33	7.79	7.59	7.47	7.26
Crombach's α	.78	.74	.72	.49	.65	.78	.75

과 만나면, 때때로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한다,' '노인이 나에게 말 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노인과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명변량은 10.33%이다. 이들 문항들은 일상생활에서 노인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문항들이다. 요인명을 '기피'라고 하였다.

요인 4는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외모의 변화에 대한 것이다. '나는 거울에서 흰머리를 보게 될 날이 두렵지 않다,'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늙어 보이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젊게 보이려고 나이를 속일지도 모른다' 등으로 요인 5의 전체 설명변량은 7.79%이다.

요인 5는 노인에 대해 차별적 행동을 한 내용이다. 주로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이고 차별적 행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노인에게 "나이가 너무 많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노인에게 나이에 관한 농담을 한 적이 있다,' '노인이 아플 때 "그 나이에는 아픈 게 정상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등으로 설명변량은 7.59%이다.

요인 6은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포함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설명변량은 7.47%이고, 적재된 문항은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여전히 대부분의 일을 나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나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하리라 예상한다'이다.

마지막으로 요인 7은 노인에 대한 기피/회피의 극한 반응으로서 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 자체를 분리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노인들은 따로(별도로 구분되는) 지역 운동시설을 사용하면 좋겠다,' '노인들의 주거공간은 따로(별도로 구분되어) 마련되는 것이 좋다' 로 구성되어 요인 7의 전체 설명변량은 7.26%이다.

3. 확인적 요인분석

집단A를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제시된 23개 문항으로 구성된 7개 요인의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집단 B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연령주의 척도의 요인구성과 패턴을 검증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작업이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이 과정에서 23개 문항으로 실시한 1차 확인적 요인 분석결과 변수 a6(“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젊게 보이려고 나이를 속일지도 모른다”)과 a8 (“나이가 들수록 나의 건강에 대해 걱정이 커진다”)의

<표 4> 연령주의(Ageism)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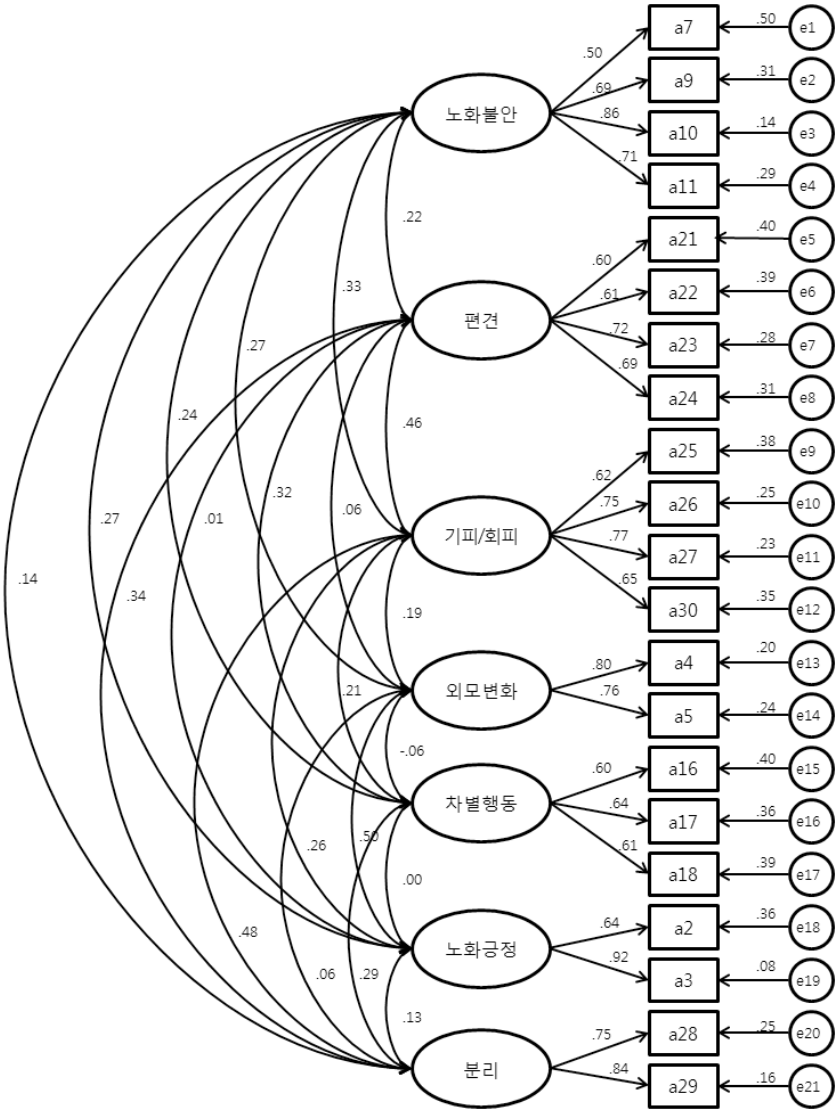
	χ^2	df	χ^2/df	IFI	CFI	RMSEA
수용수준			3.0 이하	≥ .90	≥ .90	〈.08
측정모델	460.13	168	2.74	.93	.93	.05
판정결과			적합	적합	적합	적합

표준화된 회귀계수의 적재치가 .48과 .25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몇 가지 적합도 지수가 기준보다 좋지 않았다.[4] 2개 문항에 대해서 통계적 수치에 의한 판단 이외에, 외모 변화에 대한 유보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점과 건강에 대한 불안이 모든 연령대의 문제로 인식될 가능성에서 노화에 대한 불안 요인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두 변수를 제외하고 21개 문항으로 다시 모형을 설정하고 2차 적합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들이 모두 수용할 만하며, 요인계수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χ^2/df=2.74로서 본 연구의 모형이 주어진 자료에 대체로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타 전반적 적합도 지수들 중 선호되는 지수인 IFI와 CFI도 모형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IFI는 1에 가까울수록 양호한 모형으로 대표본인 경우 0.9 이상을 적합모형을 보인다고 판단하는데(김계수, 2010), 0.93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며, CFI도 .93으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조건에 적합하다. RMSEA는 0.08 이하인 경우 모형은 어느 정도 양호하다고 할 수 있는데 0.05로 이 기준에 만족한다(김계수, 2010). 또한 (그림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각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표준적재치가 .51～.92으로 0.5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측정모델이 잠재변수를 잘 설명해주고 있으며, 구성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밝혔다.

4) χ^2/df=3.04,, IFI=0.90, CFI=0.89, RMSEA=0.06

<그림 2> 연령주의(Ageism) 척도 모형 구성타당도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의 추세 속에서 노인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의 변화에 대한 논의로서 연령주의에 주목하고, 연령주의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실증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개발된 노인집단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관련된 측정도구들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노화불안, 노인에 대한 인식(편견, 고정관념, 기피), 차별행동 등 연령주의에 대한 다차원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문항을 개발했으며, 이에 대한 검증작업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연령주의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다차원적 문항을 정리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예비문항 44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사전조사 분석을 통하여 31개의 예비문항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18세 이상 1,535명을 대상으로 문항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내적신뢰도 분석을 통해 8문항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23개 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이들 분석을 위해 전체 자료를 무작위로 두 집단(동질성 검증을 한 집단 A,B)으로 분리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최종적으로 7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21개 문항이 구성되었다. 내적신뢰도는 0.80이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척도의 적합도는 $\chi^2/df=2.74$, IFI=0.93, CFI=0.93, RMSEA는 0.05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으로, 노화에 대한 인식으로서 노화에 대한 불안, 외모변화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요인과 노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나타내는 요인이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로서 편견, 기피/회피를 나타내고 극단적으로 노인집단과의 분리를 나타내는 요인과 나이든 사람에 대한 차별 행동이 주요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이들 하위 요인들은 Nelson(2005)이 주장하는 연령주의 태도의 구성요소인 감정, 인식, 그리고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연령주의 태도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지적되어 온(Palmore, 1999) 노화에 대한 불안 및 노년에 대한 태도도 하위 요인으로 포함되었다. 따라서 서구와 일본 등에서 개발된 기존 척도들보다 연령주의 전반을 포괄하여 측정이 가능하도록 확장되었다.

노인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의 변화와 이로 인한 다양한 사회영역의 동학을 파악하는데 의미 있는 함의를 제시하는 논의로서 연령주의가 주목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령주의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지 않았으며, 연령주의를 설명하는 포괄적인 측정도구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

았다. 본 연구는 연령주의를 측정하는 기존 연구들의 내용을 정리·종합하고, 전반적인 연령대를 포함하는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측정도구를 검증하고 주요 요인들을 추출함으로써 연령주의에 대한 포괄적인 척도를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국내외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의 추세 속에서 각 사회의 연령주의 양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향후 사회구성원으로서 노인집단의 위치와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이 결과는 노인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노인관련 업무를 실천하는 현장에 노인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에 대해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다만, 이번 연령주의 척도 개발을 통한 문항들은 추가적인 자료조사와 분석을 통해 보다 정교한 척도로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특성(학력, 결혼상태, 경제상태, 건강 등등)에 따른 동질성 검증을 통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계속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국제비교를 위한 척도 개발과 함께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한국적 연령주의 척도 개발도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계수 (2010) 《AMOS 18.0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 한나래.

김동선 (2011) 《연령주의적 관점에서의 고령자 고용차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미숙 (2003) 《고령화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방안: OECD 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김욱 (2003) “노인차별의 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탐색적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3(2): 21-35.

김윤정 · 강인 · 이창식 (2004) “청년 중년 노년 세대별 노인에 대한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65-75.

김윤정 · 정선아 (2001)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173-183.

김영재 (2004) “한국형 여가만족척도 개발과 타당화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43(1) : 291-199.

김주현 (2007) “노인 생산적 활동의 복합성과 생활만족도” 《한국인구학》 30(3): 57-81.

김주현 (2009) “연령주의(Ageism) 관점을 통한 노년의 이해” 《사회와 역사》 82: 361-391.

남석인 (2008) “남성노인의 차별경험이 노인인식 및 노년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8(4): 1297-1315.

노공균・조소영・신동숙・이태훈 (1991) “Determinants of the Socio-economic and Emotional Status of the Elderly in Korea”《한국인구학》 14(2): 45-70.

박경란・이영숙 (2001) “청소년과 중년이 갖고 있는 노인의 고정관념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6): 221-239.

박경숙 (2004) “ 연령주의 사회와 법”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2차 학술대회자료집.

원영희 (2005) “노인차별 피해경험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1: 310-339.

이순묵 (2000) 《요인분석의 기초》 교육과학사.

이윤경 (2007) “비노인층이 갖는 노인 이미지 연구” 《한국인구학》 30(2): 1-22.

정경희 (2004) “인구고령화와 연령통합 사회”《사회연구》 1: 11-26.

정경희・한경혜・김정석・임정기 (2006)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 ‘성공적 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정기원 (2001) “노부모와 별거 성인자녀와의 가족유대: 정서적 지원에 대한 교환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24(1): 123-148.

최해경 (2004) “수발상황의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과 원조요청 태도” 《한국인구학》 27(1): 31-55.

한정란 (2000)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구”《한국노년학》 20(3): 115-127.

Bodily, C. (1991). “I have no opinions. I’m 73 years old. Rethinking ageism” *Journal of Aging Studies* 5(3): 245-264.

Butler, Robert (1987) “Ageism” *The Encyclopdia of Aging* New York: Springer: 22-23.

Bytheway. B. (1995) *Ageism*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Cherry, Katie, and Erdman Palmore (2008) "Relating to Older People Evaluation(ROPE): A Measure of Self-Reported Ageism" *Educational Gerontology* 34: 849-861.

Dennis, H. & Thomas, K. (2007) "Ageism in the workplace" *Generations* 31(1): 84-89.

Fraboni, Maryann, Robert Saltstone, and Susan Hughes (1993) "The Fraboni Scale of Ageism(FSA): An Attempt at a More Precise Measure of Ageism" *Canadian Journal of Aging* 9(1): 56-66.

Fishbein, Martin & Ajzen, Icek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Addison-Wesley.

Glanda Law (1995) "Understanding Ageism: Lessons from Feminism and Postmodernism" *The Gerontologist* 35: 112-118.

Jackson, W.A. (1998) *The Political economy of population aging* UK: Edward Elgar.

Laidlaw K, Power MJ, Schmidt S, WHOQOL-OLD Group (2007) "The Attitudes to Ageing Questionnaire (AAQ):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2(4):367-79.

Lasher, Kathleen P., Patricia J. Faulkender. (1993)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Development of the Anxiety about Aging Scal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7(4): 247-259.

Matcha (1997) *The Sociology of Aging: A Social Problems Perspective* Boston: Allyn and Bacon.

Nelson Todd D (2005) "Ageism: Prejudice Against Our Feared Future Self" *Journal of Social Issues* 61(2): 207-221.

Palmore Erdman. B.(2001) "The Ageism survey : first findings" *The Gerontologist* 41(5): 572-575.

Palmore, Erdman. B.(1999) *Ageism: Negative and Positive*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Pasupathi, M. & Lockenhoff (2002) “Ageist Behavior” *Ageism: Stereotyping and Prejudice Against Older Adults* Cambridge: MIT Press : 201-246.

Raykov, T. and Widaman, K.F. (1995) “Issues in appli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earc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4): 289-318.

Rupp D.E., Vodanovich S.J. & Crede M.(2006) “Age Bias in the Workplace: The Impact of Ageism and Causal attribution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6(6): 1337-1364.

Victor, W.M. (2007) “Advancing the sociology of ageism” *Social Forces* 86(1): 257-264.

Wilkinson & Ferraro (2002) “Thirty Years of Ageism Research” *Ageism: Stereotyping and Prejudice Against Older Adults* Cambridge: MIT Press : 339-359.

杉井潤子 (2007a) “なぜ高齢者を差別し虐待するのか” 《老年社會科學》 28(4); 545-552.

杉井潤子(2007b) “エイジズム構造と生成要因” 《現代の社會病理》 22: 155-170.

原田 謙 (2004) 日本語版 Fraboni エイジズム尺度(FSA)短縮版の作成 《老年社會科學》26(3) : 308-319.

原田 謙, 衫澤秀博, 柴田博 (2008) 都市部の若年男性におけるエイジズムに關連する要因 《老年社會科學》29(4) : 485-491.

[2012. 3. 29 접수 | 2012. 4. 9 심사(수정) | 2012. 4. 16 채택]

Ageism Survey : A Report on Instrument Development

Kim Ju-Hyun

This study aims to identify and evaluate the contents of ageism and to develop instrument of ageism. Ageism instrument development remains a necessary in aging research, for the explication of actual condition of ageing. The current study describes multidimensional view of ageism toward aging and the elderly. After pre-test and review of professionals, 31 items was constructed. Data were obtained from KGSS Survey of 1535 participants. The sample was randomly divided into two group to tes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cale. Finally, the 23-items with seven factor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internal reliability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ith the first group. Another group were conducte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inal 23-item scale with seven factors had a good model fit. Development and refinement of ageism scale are necessary elements for proceeding beyond theoretical and empirical discussions in ageism. It also provides a implications for current views of ageism and strategies for reducing ageism.

Key Words: Ageism survey, Scale development, Reliability, Validity, Factor analysis